

2024학년도 1학기 문헌연구보고서



노벨문학상 수상을 위한 한국문학의 개선 가이드라인

- 세계 문학장에서 한국문학의 경쟁력 강화 -

이름	이현지
전공	경영학과
학번	20216005

노벨문학상 수상을 위한 한국문학의 개선 가이드라인

- 세계 문학장에서 한국문학의 경쟁력 강화 -

이현지 (경영학과)

- 목차 -

- I. 서론
- II. 세계 문학장에서 한국문학이 경쟁력을 잃는 원인 분석
 - 1. 번역의 한계
 - 2. 정부와 대한출판문화협회의 갈등
- III. 한국문학의 노벨문학상 수상을 위한 개선 방안
 - 1. 번역가 양성과 AI번역 기술 발전의 지원
 - 2. 국내외적으로 한국문학 교육 강화
 - 3.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홍보 전략 재수립
- IV. 결론
- 참고문헌

I. 서론

2012년 싸이의 <강남스타일>을 시작으로, 2019년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 2021년에 방영된 <오징어 게임> 등 한국 문화에 열광하는 신드롬이 전 세계적으로 점차 확대되고 있다. K-pop, K-drama, K-food 등 해외 각국의 소비자들로부터 주목받고 있는 한국 대중문화의 범위 또한 다양해지고 있는데, 본 논문은 그중 K-literature인 한국 문학에 집중해보려고 한다.

최근 들어 한국문학의 세계 진출이 잦아지고 있다. 2022년에 정보라 작가의 소설집 『저주 토끼』가, 2023년에는 천명관 작가의 장편소설 『고래』가, 그리고 올해 2024년에는 황석형 작가의 장편소설 『철도원 삼대』가 3년째 연속으로 영국 부커상 인터내셔널 부문 최종 후보에 올랐다.

한국문학번역원 관계자는 “특히 2016년 한강 작가의 아시아 최초 부커상 인터내셔널 부문 수상 이후 7년이 지난 지금 한국문학의 국제적 인지도와 영향력은 괄목할 만큼 높아졌다”라고 평가했다.

¹ 그리고 지난 5년간 해외에서 누적 5,000부 이상 판매된 한국문학 작품이 총 60종으로, 2022년 조사 대비 43% 증가한 수치라는 점을 고려하면 국제적으로 한국문학의 위상이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² 그러나 이러한 한국문학의 평가와는 다르게, 최종적으로 국제 문학상 수

¹ 이호재, “언어의 장벽을 넘어 전 세계를 홀린 ‘K-문학’”, open.ads (미래에셋증권 매거진), 2023.9.24., <https://www.openads.co.kr/content/contentDetail?contsId=11653&categoryCode=CC49>

² 신다인, “K-문학 열풍... 해외서 5년간 185만부 팔렸다”, 여성신문, 2024.1.29.,

상을 받은 한국작품은 몇 없다는 점에서 세계 문학장에서 한국문학의 영향력과 경쟁력은 여전히 미비한 것으로 분석해 볼 수 있다. 문학상이라고 하면, 대부분 세계 3대 문학상을 떠올릴 것이다. 세계 3대 문학상은 앞서 언급한 ‘맨부커상’, ‘콩쿠르상’과 ‘노벨문학상’이 있다. 그러나 이 권위 있는 문학상 중 ‘노벨문학상’을 수상받은 아시아 작가는 다섯 명으로 인도인, 일본인과 중국인이다. 즉, 노벨문학상을 수상받거나 후보로 거론된 한국작가는 현저히 적다는 점에서, 한국문학이 세계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노벨문학상 수상’을 기준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 이에 따라 해당 논문에서 국제 문학상과 세계 진출의 기준을 노벨문학상 수상으로 둘 것이다.

국제적인 관점에서 한국문학이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한 원인을 분석하려고 한다. 이런 문제를 다루고 있는 선행연구들은 있지만, 대부분은 단편적으로 노벨문학상 수상을 받은 작품과 한국문학을 비교 분석하여 우리나라 문학의 문학적 발전 방향성만을 제시하는 한계를 보였다. 혹은 「한국 문학의 세계화 방안」(설성경)처럼 1994년에 작성된 오래된 연구라, 우리나라의 최근 사회 경제적 이슈와 정책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있는 조사였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한국문학이 세계 문학장에서 약한 경쟁력을 띠는 문제 원인을 분석한 후, 앞으로 한국문학이 노벨문학상과 같은 국제 문학상 수상을 받기 위해 개선 방안 방향성을 여러 개 제안해보려고 한다.

II. 세계 문학장에서 한국문학이 경쟁력을 잃는 원인 분석

1. 번역의 한계

한국문학이 세계화에 성공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하게 신경 써야 할 부분은 바로 ‘번역’이다. 아무리 역량이 뛰어난 작가가 문학적 가치가 있는 작품을 발행했다 하더라도, 해당 작품을 번역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오역이 생기면 원작의 본 의미를 변질시켜 가치를 훼손할 수 있는 위험이 있다. 문학을 번역할 때에는, “작품의 가치를 결정짓는 문학의 특수한 구성”이나, “작가라면 반드시 염두에 두었을 문체, 고유한 리듬이나 어휘의 독특한 사용” 등 다양한 문학적 요소까지 세밀하게 고려해야 한다.³ 결국, 번역은 얼마나 원문을 가장 완벽하게 대신하였고, 어떻게 최대한 원작과 동일한 감동을 주었는가의 문제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문제는 특히 서구 독자들이 동양 작가들의 작품을 읽을 때 더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모스크바국립외국어대학의 솔다토바 교수는 한국문학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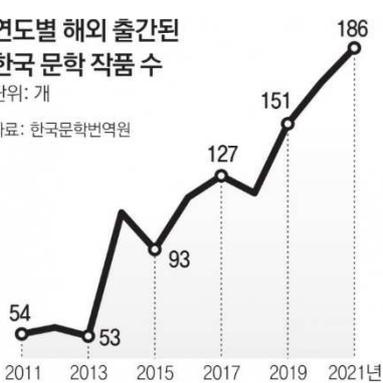
<https://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44847>

³ 조재룡, “문학을 문학으로 번역하는 일이 중요하다”, 한국일보, 2016.5.31.,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605311290422089>

“국내소비에는 적합하지만, 해외수출에 있어서는 너무나도 ‘한국적’인 것에 많은 지원을 하고” 있어, 일반 해외독자들이 “한국인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문학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⁴ 따라서 한국문학 특성상 번역하기 쉽지 않다는 점에서 한국문학 번역의 품질 또한 좋지 않은 경우가 더러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런 문제는 곧 한국문학이 노벨문학상과 같은 국제 문학상을 받는 데 걸림돌이 되는 것이다.

번역의 질 뿐만 아니라 한국문학을 번역하는 전문가도 많지 않다는 문제 또한 지적해 볼 수 있다. 정보라 작가의 소설집 『저주토끼』가 2022년 영국 부커상 인터내셔널 후보작에 오르는 데 크게 이바지한 한 안톤 허 번역가의 인터뷰를 살펴보면 더욱 쉽게 이해할 수 있다. 해외에서는 부

연도별 해외 출간된 한국 문학 작품 수
단위: 개
자료: 한국문학번역원



커상과 같은 국제 문학상에서 후보 및 수상을 하게 되면, 이 과정을 함께한 번역가도 작가 못지않은 관심과 주목을 받는다. 그러나 안톤 허 번역가는 한국에서만은 다른 현실이라고 답했다. 부커상은 번역가에게도 주어지는 공동 상임에도 불구하고 “국내 보도에선 번역가의 이름이 대부분 빠져 있”기 때문이다.⁵ 번역가 역할의 중요성을 인지하면서도 번역가에게 적절한 대우와 적극적인 지원 및 인프라가 부족하다면, 이들의 사기를 저하할 수 있다. 가와

바타 야스나리와 오에 겐자부로, 이 두 명의 노벨문학상 수상자를 배출한 일본의 경우를 보면, 1945년부터 국가가 주도하여 일본문학 작품의 번역을 지원했다는 것을 볼 수 있다. 2011년 해외에 소개된 두 작가의 작품만 해도 각각 130~150여 편에 달했으며, 약 2만 편에 가까운 일본문학 작품이 해외에 소개되었다.⁶ 즉, 일본의 경우, 일본정부가 주도적으로 나서서 번역 및 일본문학 작품 소개를 하는 것이다. 물론 한국 또한 매년 해외에 출간하는 작품의 수가 증가하고 있지만, 일본과 비교하면 여전히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결국, 한국은 여러 국제문학상 수상자를 배출한 해외와 비교했을 때, 번역가에 대한 적절한 대우와 존중, 그리고 인프라가 부족한 편이라고 볼 수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한국문학의 노벨문학상 수상을 위한 개선 방안에서 확인할 수 있지만, 인프라 부족의 대표적인 예시로는 한국문학 해외 번역 출간의 확대 지원이나 국제적인 문학행사 개최 지원 확대 등이 있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문제가 지속할 경우, 가까운 미래에는 전문성을 갖춘 번역가 부족 현상에 직면할 위험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한국문학이 세계화가

⁴ 김쌍주, “왜, 한국인은 노벨문학상 수상자가 없는 것일까?”, 일요저널, 2017.6.5., <https://www.ilyo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15880>

⁵ 김영화, “번역가 없이 K문학 열풍은 없다”, 시사IN, 2023.2.2.,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9452#google_vignette

⁶ 강우원용 (2009), 「일본문학 번역물로 보는 한국 사회와 독서문화」, NRF KRM (Korean Research Memory).

되는 과정에서 큰 어려움이 될 것이다.

2. 정부와 대한출판문화협회의 갈등

나날이 한국문학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과는 달리, 2023년부터 정부와 대한출판문화협회의 갈등은 고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출판 업계와 유망한 작가들의 세계 진출의 기회가 줄어들고 늦춰지고 있는 상황이다. 사건의 경위는 2023년 8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국고보조금이 지급된 서울국제도서전의 수익금 일부가 누락되었다는 의혹에 대한출판문화협회 장 윤철호를 포함한 2명을 서울경찰청에 수사 의뢰를 하며 시작되었다. 그리고 출판협회는 두 달 후인 10월에,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 4명을 맞고소한 상태다.⁷ 이와 같은 갈등은 한국 출판사와 국내 작가들이 해외 출판사와의 국제적인 교류 및 홍보를 위해 준비해왔던 각종 국제도서전이 무산되거나 축소하는 결말로 끝날 수 있다. 왜냐하면,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출판협회의 도서전 수익금 정산에 대한 명확한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예산 집행을 중단한다는 방침을 발표했기 때문이다.

한국문학의 발전과 세계화 과정에서 문화체육관광부와 대한출판문화협회의 역할이 매우 크기 때문에, 이들의 갈등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대한출판문화협회에서 주최한 다양한 국내·외 문학 교류의 장이 해외에서 한국문학 출간 도서 수가 증가하도록 도움을 주었기 때문이다. 대한출판문화협회의 역할은 곧 현지독자들이 한국문학에 대한 긍정적 인식과 수요로 이어질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때문에 중요하다. 그리고 이러한 교류의 장은 정부의 지원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문화체육관광부의 역할 또한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것처럼 정부와 대한출판문화협회의 갈등은 이런 국제적 교류의 장과 홍보를 방해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국제도서전의 경우, 인플레이션으로 참가비가 크게 상승한 바람에 정부의 예산이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더 구체적으로는, 출판협회에 따르면 “서울국제도서전 운영 (6억 7,000만 원), 해외도서전 한국관 운영 (5억 5,000만 원), 한국도서 해외전파 (6,000만 원) 사업 등에 대해 약 13억 원에 달하는 예산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⁸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약 46.7%가 급감한 예산인 만큼 출판사와 작가 등의 관계자들은 곤욕을 치르고 있다.⁹ 해외

⁷ 이은정, 송광호, “‘K출판’ 세계로 뻗어가는데… 정부·출판계 갈등 여진(종합)”, 연합뉴스, 2024.1.16., <https://www.yna.co.kr/view/AKR20240116112651005>

⁸ 신재우, “[기자수첩] 문체부·출판협회 해묵은 갈등 해결책 없나”, 뉴시스, 2024.1.22., https://www.newsis.com/view/NISX20240122_0002600255

⁹ 이호재, “도서전 예산 삭감에… 출판협회 ‘해외진출 차질’ vs 문체부 ‘정부가 주도’”, 동아일보, 2024.1.16., <https://www.donga.com/news/Culture/article/all/20240115/123064895/1>

각국의 출판사를 만날 기회를 놓친 국내 작가들과 세계 진출을 코앞에 둔 출판 업계만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진정으로 한국문학의 세계화와 발전을 바란다면, 문화체육관광부와 대한출판문화협회는 하루빨리 고소전을 끝내고 한국문학의 건강한 생태계를 만드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는 둘 중 한 측이 고소를 포기하거나, 더욱 원활한 소통을 위해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나뉘어야 할 것이다.

III. 한국문학의 노벨문학상 수상을 위한 개선 방안

1. 번역가 양성과 AI번역 기술 발전의 지원

앞서 언급한 것처럼 한국문학 번역의 양질을 높인다면, 한국문학이 노벨문학상과 같은 국제 문학상을 수상 받는데 한 발짝 가까워질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몇 가지 개선 방안 및 해결책을 제안해보려고 한다. 우선 번역의 양을 늘리려면, 번역가를 제대로 우대해줘야 한다. 안톤 허 번역가에 의하면 지난 “10년간 한국문학번역원에서 번역가에게 주는 지원금 액수가 거의 오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¹⁰ 차세대 번역가들을 더욱 모집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통·번역가의 전문성을 인정해주고 그에 맞는 대우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한국문학의 가치를 제대로 보일 수 있는 고품질의 번역을 위해서는 체계적으로 번역가를 양성할 수 있는 기관이 필요하다고 본다. 기존의 한국문학 번역가를 양성하는 기관보다 더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커리큘럼과 목표를 갖춰야 한다. 대표적으로 외국어 번역가를 단계별로 나누어 최대한 많이 양성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한국문학번역원의 발표에 의하면 문학번역의 진화는 3단계로 구분한다고 한다. “1세대는 외국어 능통한 한국인 번역자, 2세대는 외국인과 한국인 공동 번역자, 3세대는 한국어와 외국어에 능통하고 양국 문화에도 친숙한 원어민 번역자”이다.¹¹ 특히 3세대 번역가는 한국문학을 옮길 수 있는 핵심 인재이기에 조직적으로 집중하여 양성할 필요가 있다. 이들은 문학적 감수성과 언어능력만 제대로 갖춘다면, 문학번역의 예술적 품질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동시에 1, 2세대와 같은 번역가 양성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 글로벌화로 국경이 무의미해진 오늘날, 다양한 외국어와 문화에 친숙한 번역가가 많을수록 한국문학 번역에 도움

¹⁰ 김영화, “번역가 없이 K문학 열풍은 없다”, 시사IN, 2023.2.2.,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9452#google_vignette

¹¹ 이순녀, “AI문학번역, 아직 초보이지만 변화 속도 빨라… ‘공진화’ 노력해야”, 서울신문, 2023.7.8., <https://www.seoul.co.kr/news/editOpinion/column/people-story-lsn/2023/07/06/20230706025001>

이 될 것임은 틀림없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거대언어모델 (LLM)과 생성형 인공지능 (대표적으로 ChatGPT)의 등장으로 AI 번역 기술이 점차 정교해지고 있다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우선 거대언어모델이란, 방대한 양의 텍스트 데이터를 학습하면서 사람과 유사한 텍스트를 생성하고, 문맥을 이해하며, 질문에 대답할 수 있는 머신러닝 모델이다. 거시적인 측면에서는 오늘날 번역, 요약, 감정 분석 분야에서까지 활용할 수 있는 형태로 발전했다.¹² 즉, 기존 AI번역 기술의 문제점이었던 부정확성과 오류는 해결되었고, 오늘날에는 되려 다의어 해석에 대한 알고리즘까지 제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번역의 품질 측면에서 볼 때, 한국문학 업계는 AI번역 기술에 지속해서 관심을 뒤야 한다. 물론 이러한 AI번역 기술의 발전은 기존 번역가 양성의 필요성에 대해 질문을 할 수 있다. 그러나 문학 번역에서는 특히 미학적인 감각이 필요하다. 즉, 번역에도 창작성이 필요한 영역인 만큼 AI기술에만 의존하고 번역가 양성을 등한시하면 안 된다. 따라서 번역가의 주관과 오역에 대한 활발한 논의와 번역가와 AI기술의 양방향 활용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문학이 세계문학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양질의 번역이 필요한 만큼 적절한 번역가 육성과 AI번역 기술 지원에 힘써야 할 것이다.

2. 국내외적으로 한국문학 교육 강화

한국문학의 발전과 세계화를 위해서는, 먼저 국내적으로 한국문학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알려야 한다. 2021년 기준, 우리나라는 매년 약 65,000권의 신간 도서를 발행하지만, 「2023년 국민 독서실태조사」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 성인 10명 가운데 6명 정도는 1년 동안 책을 단 한 권도 읽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성인의 평균 독서 시간은 평일 18.5분, 휴일 25.0분으로 나타나기도 했다.¹³ 그러면서도 “한국 사람들은 외국과 비교해 유난히 노벨문학상 수상에 관심이 많다”고, 왕립아세아학회 한국지부 명예회장 안선재는 말했다.¹⁴ 쉽게 말해 한국인조차 한국문학에 관한 관심이 낮으면서, 동시에 노벨문학상 수상을 기대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우선 자국민부터 독서율을 높이고 문학의 교육을 강화하여 한국문학의 관심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 초·중·고등학교 중심으로

¹² 배운철, “인공지능, 거대언어모델(LLM)과 GPT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트렌드와칭, 2023.9.25., <https://www.trendw.kr/news/articleView.html?idxno=10229>

¹³ 임재성, ““지난해 우리나라 성인 60% 독서 안했다”... 1년 평균 3.9권”, KBS 뉴스, 2024.4.18.,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7942738>

¹⁴ 박현수, “한국인은 유난히 노벨상에 관심 많아... 의미없어요”, 문화일보, 2021.11.12., <https://www.munhwa.com/news/view.html?no=202111201072836170001>

한국문학 교육과 다양한 장르의 문학 서적을 집중적으로 보급한다면, 자연스럽게 청소년들에게 노벨문학상에 대한 꿈을 심어줄 것이며, 관련 문학 인재를 많이 양성할 수 있으리라 기대해볼 수 있다.

국외적으로 한국문학 교육을 강화할 방법은, 장르별로 한국문학을 선정하여 최대한 다양한 외국어로 번역하고 출판한 뒤, 외국의 도서관에 널리 보급하는 것이다. 한국을 알리고 한국의 좋은 문학작품을 전 세계로 전파하려면, 한국작가들의 새로운 작품이 나올 때마다 적은 수라도 필수적으로 외국의 시립도서관에 기부 및 구매를 적극 전달하는 제도적 행사를 만들어야 한다.¹⁵ 작년 2023년,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대만에 약 5,000 권의 국내문학 작품을 해외에 처음 보급했다.¹⁶ 그러나 아직 대만에만 처음 시행했다는 것과 보급한 국내문학 작품 수가 적다는 점에서 앞으로 점진적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 이로써 자연스럽게 한국문학을 전파하고 해외 독자들이 한국문학에 관심을 가질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3.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홍보 전략 재수립

오늘날 한국문학이 번역·출간되는 나라는 영미권과 아시아권에 편중된 상황이다. 물론 세계 문학계의 헤게모니는 영미권이 잡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전략이 결코 나쁘다는 의미는 아니다. 그러나 한국문학번역원이 조사한 자료처럼 영어, 독일어, 프랑스어, 중국어 중심의 한국문학 번역과 출간을 지속한다면, 장기적으로 한국문학의 세계진출은 한계에 이를 것이다.¹⁷ 한국문학은 특히 영미권에서의 성공 없이도 세계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형성해야 한다. 그러나 해외에 한국문학을 소개하는 경로는 매우 한정적이다. 한국문학이 해외 진출을 하는 과정은 대개 “한국문학번역원이나 출판사, 일부 에이전시를 통해 해외 에이전시와 판권을 계약한 뒤 이루어진다.”¹⁸ 이처럼 한정적인 계약과 홍보 경로는 한국문학이 세계시장에서 활동하기에는 규모가 매우 작은 편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한국문학을 해외에 적극 알릴 수 있는 통로를 더욱 확장 및 다각화하고 치밀한 홍보전략을 세워야 한다. 제안해볼 만한 전략으로는, 전 세계에서 한국문학을 공부하고 있는

¹⁵ 김쌍주, “왜, 한국인은 노벨문학상 수상자가 없는 것일까?”, 일요저널, 2017.6.5., <https://www.ilyo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15880>

¹⁶ 강진아, “예술위, 국내 38만권 문학나눔 도서 보급…해외로 확대”, 뉴시스, 2023.5.24., https://www.newsis.com/view/NISX20230524_0002315074

¹⁷ 한국문화번역원 (2022), 「해외에서 가장 많이 팔린 한국문학은?」, 한국문학번역원과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¹⁸ 이호재, “언어의 장벽을 넘어 전 세계를 흔린 ‘K-문학’”, open.ads (미래에셋증권 매거진), 2023.9.24., <https://www.openads.co.kr/content/contentDetail?contsId=11653&categoryCode=CC49>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국문학 콘서트를 추진하는 것이다.¹⁹ 국내의 뛰어난 역량을 가지고 있는 작가들이 해당 학생들과 잠재적 소비자들과 직접 교류할 수 있는 사인회와 같은 만남의 장을 마련한다면, 자연스럽게 한국문학의 홍보와 관심이 확산할 것으로 기대해볼 수 있다.

IV. 결론

한국에는 뛰어난 문학적 가치와 작품성이 있는 문학작품이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진흙 속의 진주처럼 아직 발굴되지도 않은 한국문학 또한 많다. 본 논문은 타 문화권과 비교했을 때, 유달리 한국문학이 세계 문학장에서 주목을 받기 어려운 원인을 분석해보았다. 대표적인 원인으로서는 한국문학에서의 번역 인프라가 충분히 구축되지 않았다는 점과 현 정부와 대한출판문화협회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번역의 양질을 높이기 위해 번역가 양성과 AI번역 기술 지원에 집중할 것, 국내외의 한국문학 교육을 더욱 강화하여 한국문학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강조할 것, 그리고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체계적인 홍보 전략을 펼쳐야 한다고 분석해보았다. 한국문학이 노벨문학상 수상을 받기 위해 작품 자체의 뛰어난 문학성도 중요하겠지만, 국내외 소비자의 노력과 지원, 번역가 업계의 발전과 정부의 다각적인 지원과 홍보의 필요성 등 거시적인 관점에서 해당 문제에 접근했다는 점에서 매우 유의미한 연구였다고 생각한다. 소비자, 한국문학 관련 관계자, 그리고 정부가 함께 한국문학의 세계화를 위해 노력한다면 앞으로 한국문학의 새 시대는 도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¹⁹ 오순숙, “한국문학, 한류 이끌기 위한 세계화 전략”, 한국자유총연맹, 2021.4.2.,

https://www.koreaff.or.kr/mybbs/bbs.html?mode=view&bbs_code=pds05&cate=%EC%9E%90%EC%9C%A0%EB%A7%88%EB%8B%B9&bbs_no=4256

참고문헌

강우원용 (2009), 「일본문학 번역물로 보는 한국 사회와 독서문화」, NRF KRM (Korean Research Memory).

장진아, “예술위, 국내 38 만권 문학나눔 도서 보급…해외로 확대”, 뉴시스, 2023.5.24.,
https://www.newsis.com/view/NISX20230524_0002315074

김순희, (2014), 「일본의 ‘노벨 문학상’ 수상 작품을 통해서 본번역의 양상-가와바타 야스나리와 오에 겐자부로를 중심으로」, 『일본근대학연구』 44 호, 143-156 쪽.

김쌍주, “왜, 한국인은 노벨문학상 수상자가 없는 것일까?”, 일요저널, 2017.6.5.,
<https://www.ilyo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15880>

김영화, “번역가 없이 K 문학 열풍은 없다”, 시사 IN, 2023.2.2.,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9452#google_vignette

박현수, “한국인은 유난히 노벨상에 관심 많아… 의미없어요”, 문화일보, 2021.11.12.,
<https://www.munhwa.com/news/view.html?no=2021111201072836170001>

배운철, “인공지능, 거대언어모델(LLM)과 GPT 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트렌드와칭, 2023.9.25.,
<https://www.trendw.kr/news/articleView.html?idxno=10229>

설성경(1994), 「한국 문학의 세계화 방안」, 『문화정책논총』 6 호, 124-149 쪽.

신다인, “K-문학 열풍… 해외서 5 년간 185 만부 팔렸다”, 여성신문, 2024.1.29.,
<https://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44847>

신재우, “[기자수첩] 문체부·출판협회 해묵은 갈등 해결책 없나”, 뉴시스, 2024.1.22.,
https://www.newsis.com/view/NISX20240122_0002600255

송광호, 이은정, “‘K 출판’ 세계로 뻗어가는데… 정부·출판계 갈등 여전(종합)”, 연합뉴스, 2024.1.16.,
<https://www.yna.co.kr/view/AKR20240116112651005>

오순숙, “한국문학, 한류 이끌기 위한 세계화 전략”, 한국자유총연맹, 2021.4.2.,
https://www.koreaff.or.kr/mybbs/bbs.html?mode=view&bbs_code=pds05&cate=%EC%9E%90%EC%9C%A0%EB%A7%88%EB%8B%B9&bbs_no=4256

이순녀, “AI 문학번역, 아직 초보이지만 변화 속도 빨라… ‘공진화’ 노력해야”, 서울신문, 2023.7.8.,
<https://www.seoul.co.kr/news/editOpinion/column/people-story-lsn/2023/07/06/20230706025001>

임재성, ““지난해 우리나라 성인 60% 독서 안했다”... 1년 평균 3.9 권”, KBS 뉴스, 2024.4.18.,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7942738>

이호재, “도서전 예산 삭감에… 출판협회 “해외진출 차질” vs 문체부 “정부가 주도””, 동아일보, 2024.1.16.,
<https://www.donga.com/news/Culture/article/all/20240115/123064895/1>

이호재, “언어의 장벽을 넘어 전 세계를 홀린 ‘K-문학’”, open.ads (미래에셋증권 매거진), 2023.9.24.,
<https://www.openads.co.kr/content/contentDetail?contsId=11653&categoryCode=CC49>

이호재, “장르문학-그림책-이민자 소설까지… K 문학, 세계로 짙짙 뻗다”, 동아일보, 2022.4.24.,
<https://www.donga.com/news/Opinion/article/all/20220425/113054523/1>

조재룡, “문학을 문학으로 번역하는 일이 중요하다”, 한국일보, 2016.5.31.,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605311290422089>

한국문화번역원 (2022), 「해외에서 가장 많이 팔린 한국문학은?」, 한국문화번역원과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